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속보]

- Bloomberg: 연방 대법원, “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는 무효”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4분기 GDP 성장 1.4%에 그쳐...셋다운과 무역 부진 등으로
- Bloomberg: 트럼프, 셋다운이 GDP에 미친 여파에 비판
- YahooFinance: 12월 미 물가도 예상보다 높아
- Bloomberg: 달걀 가격은 떨어졌다
- Bloomberg: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 대만 수입이 중국산 수입보다 앞서

[무역전쟁]

- Reuters: 연방대법원 불법 판결시 미국, 관세 1천7백50억 불 물어내야

[주택]

- Bloomberg: 1월 계약 중인 미 주택 판매, 가장 저조

[에너지]

- YahooFinance: 원유가, 6개월 만에 최고치 계속 유지...이란에 경고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최근엔 미 근로자들이 이직한 동기 줄어들어

[속보]

Bloomberg: US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’s Global Tariffs **연방 대법원, “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는 무효”**

- 연방대법원은 오늘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.
- 대법관 6대 3 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. 연방대법원장 John Roberts 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.
- 그는 “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
- 이번 판결로 대규모 관세 조치는 즉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 소식에 주식과 미국 채권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상승했고,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.
- 한편 연방대법원은 수입업자들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.
- CNN에 따르면 트럼프 이번 판결을 “치욕(disgrace)”이라고 비판했다.



기사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GDP Grows 1.4%, Missing Forecasts on Shutdown, Trade Impact

미 4분기 GDP 성장 1.4%에 그쳐...셋다운과 무역 부진 등으로

- 미 경제가 지난 4분기에 예상보다 부진했다. 장기적인 연방 셋다운과 소비 지출 및 무역 둔화 때문이었다.
- 인플레이 조정 GDP가 지난해 3분기에는 연율 4.4%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는 1.4%에 그쳤다고 연방정부는 오늘 금요일 관련 임시 수치를 발표했다. 따라서 작년 전체로는 연 2.2% 성장했다고 연방 경제 분석국은 밝혔다.
- 이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4분기 성장은 거의 3개월 가까이 간 연방정부 셋다운의 여파가 컸는데 연방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셋다운 기간중에 연방 서비스 축소로 GDP 성장이 마이너스 1% 줄었다는 것이다.

기사

Bloomberg: Trump Bemoans Shutdown Impact on GDP Before Fourth Quarter Read

트럼프, 셋다운이 GDP에 미친 여파에 비판

- 트럼프는 지난해 4분기 GDP에 연방 셋다운이 미친 여파는 적어도 마이너스 2% 포인트라고 말했다. 그는 이 같은 비판적인 입장을 연방정부가 추정치로 지난 4분기 GDP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같이 밝혔다.
- 그는 “민주당으로 인한 셋다운은 미국에 최소 GDP 2%포인트의 손실을 입혔다.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시, 예산 합의 지연 등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셋다운은 안 된다!”라고 강조했다.
- 한편 민주당은 추가 예산안을 지지하기 위해서는,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요원이 연루된 대형 폭력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,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.

기사

YahooFinance: Inflation rose more quickly than expected in December 12월 미 물가도 예상보다 높아

- 지난 12월 미 핵심물가지수가 1년만에 빠르게 상승했다. 대부분의 미국인이 원하는 수치보다 높았으며 연준의 목표치 2%보다 상승했다.
-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11월에는 물가가 전월에 비해 0.2% 상승했으나 12월에는 0.4%로 더 크게 올랐다.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연방 정부 셋다운으로 인해 늦어졌다. 월간 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2월 이래 가장 높았다.
- 연간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작년 12월은 2.9% 상승해 지난 11월 연율 2.8% 상승보다도 높았다. 12월 연간 물가 상승률도 지난 2024년 3월 이래 가장 높았다.

기사

Bloomberg: Egg Prices Collapse as Once-Empty Shop Shelves Now Overstuffed 달걀 가격은 떨어졌다

- 작년 미국에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크게 늘린 결과, 달걀이 과잉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.
- 올해 1월 한 꾸러미 A급 달걀은 평균 \$2.577로 가장 가격이 높았던 작년 3월의 \$6.227보다 59%나 떨어졌다.
- 그 여파로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해 일부 생산자들은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운영하고 있다.
- 현재 많은 생산자가 손익분기점을 밀도는 상황이며, 공급 물량이 현재 많은 데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달걀 가격은 당분간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.

기사

Bloomberg: US Imports More From Taiwan Than China for First Time in Decades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 대만 수입이 중국산 수입보다 앞서

- 작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모가 그 전년도 동월에 비해 44% 감소한 2백 11억 달러로 감소했다. 반면에 같은 기간에 대만산 수입은 두배 이상 증가해 2백47억 달러를 기록했다.
- 대만으로부터 오는 수입품 상승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 거의 배로 늘었는데 작년에 미국이 대만의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.
- 작년 12월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1백27억 달러였으며 작년 전체 대중국 적자는 9백34억 달러 줄어든 1천21억 달러로 나타났다. 반면에 대대만 적자는 거의 두배 늘어난 1천4백70억 달러로 나타났다.

기사

[무역 전쟁]

Reuters: US tariff revenue at risk in Supreme Court ruling tops \$175 billion, Penn-Wharton estimates

연방대법원 불법 판결시 미국, 관세 1천7백50억 불 물어내야

- 펜-와튼 대학 예산 모델(Penn-Wharton Budget Model)을 사용한 학자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긴급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 1,750억 달러 이상이 환급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.
- 이 추정치는 제품과 국가별 관세율을 바탕으로 한 모델로 산출된 것으로,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(IEEPA)에 따른 관세도 포함된다.
- 무효로 판정됐는데 수입업자들은 지난 1년간 낸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(CBP)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Pending Home Sales Fell to Record Low in January 1월 계약 중인 미 주택 판매, 가장 저조

- 지난달 계약 중인 미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구매자들은 낮은 주택 모기지율과 가격 인상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.
- 관련 계약 체결 지수는 지난달 0.8% 하락하며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
-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중간 전망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, 전국중개인협회(NAR)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윌슨
- “구매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더 많은 구매 상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”고 진단했다.

기사

[에너지]

YahooFinance: Oil Holds Near Six-Month High as US Warns Iran Has Days for Deal

원유가, 6개월 만에 최고치 계속 유지...이란에 경고

- 원유 가격은 6개월 만의 최고 수준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다.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과 관련해 최대 15일 안에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71달러 근처에서 소폭 하락했지만, 주간 기준으로 약 5%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.
- 트럼프는 “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 ‘최대’ 기간이 10~15일 정도”라면서 분쟁 가능성과 원유 공급 차질 리스크를 불러 일으켰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Life after the ‘great resignation’: Incentives are dimming for workers to change jobs

최근엔 미 근로자들이 이직한 동기 줄어들어

- 현재 직장을 유지한 사람과 이직한 사람 사이의 연간 평균 임금 상승률 차이는 2022년 4월 8.4%포인트에서 2023년 1월 1.9%포인트로 크게 줄었다. 많은 근로자가 이직 대신 현재 직장에 머무르는 “Great Stay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팬데믹 이후 많은 근로자가 대규모로 퇴사했던 “Great Resignation”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.
- 현재 채용은 적고 해고도 적은 노동시장 구조로 근로자들이 안정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. 그런데도 구인 광고를 찾는 새로운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, 노동 시장 내 활발한 이동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